

INEX

HOUSING MEMBERSHIP MAGAZINE 2005 NO.3 VOL.07

SPECIAL THEME **FRANCE** • **MAISON AVEC GENS** Maison d'Arthur, Maison de Chapoutot, La Cité Manifeste, Maison de Wattinne, dialogue en france • **ESPACE AVEC GENS** Paris-Bercy, Promenade Plantee, Futuroscope, Vulcania • **C'EST LA VIE** Biennale de Lyon, Drouot, Poulet de Bresse, Haute Couture, Bang Hoi-ja, Braderie, belle Maison

L'ENSEMBLE

DE

VARIÉTÉ

FAIT

LA

FRANCE

PLUS

BELLE

ENSEMBLE DE VARIÉTÉ



CONTENTS

2005 NO.3 VOL.07 SPECIAL THEME | FRANCE

MAISON AVEC GENS

- 08 MAISON D'ARTHUR 빛 속에 피어오르는 오랜 이야기들
- 14 VIE DE FRANÇAIS 다양한 표정의 양상들, 그 유연한 코리스
- 16 MAISON DE CHAPOUTOT 정직을 응시하는 무채색, 그 숨겨진 열정
- 18 LA CITÉ MANIFESTE 공공 주택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일탈
- 22 MAISON DE WATTINNE 습은 공간들로 채워진 낙낙한 동지
- 24 DIALOGUE EN FRANCE 집 짓기는 양상불한 그림 그리기이다

ESPACE AVEC GENS

- 28 PARIS-BERCY 일상의 구심점이 공원인 까닭?
- 34 PROMENADE PLANTÉE 살짝만 비틀면 꿈이 이루어진다
- 36 FUTUROSCOPE 미래 속에서 현재를 꿈꾸다!
- 42 VULCANIA 너른 고원에 펼쳐진 산책로

C'EST LA VIE

- 50 BIENNALE DE LYON 지속성, 그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
- 56 DROUOT 바랜 빛의 긴장 진영을 연모하다
- 60 POULET DE BRESSE 변하지 않는 맛의 오랜 비결
- 62 HAUTE COUTURE 미적 진화를 도모하는 유쾌한 담론
- 66 BANG HAI-JA 빛의 승결로 우주를 채우다
- 72 CHARITÉ/BRADERIE 다양한 이웃이 하나 되는 통로
- 74 BELLE MAISON? '좋은집' 이란





MAISON AVEC GENS

프랑스의 집들은 프랑스의 전형적 정취, 곧 역사와 시간의 향기 같은 걸 품고 있는 듯하다.

도시의 오래된 집들은 물론이고, 새로 지어지는 집들조차도 옛것의 미덕을 새롭게 해석해 그 안에 담아내고 있다.

오랜 것의 긴긴 정취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프랑스인들처럼.



빛 속에 피어 오르는 오랜 이야기들

dans la lumière



안마당에서 바라보이는 유리 파사드는
이 집의 북쪽 길가의 고전적 파사드와 대조를 이루는
오늘날 이 가족의 생활을 상징하는 반사판이다.

바깥쪽에서 보면 고전적이고 안쪽에서 보면 현대적인 집!
바로 파리 도심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그대로 압축되어 있는 광경이다.
이는 곧 파리지앵들의 삶이 전통 풍경에 무척이나 잘 어울리면서도
또한 무척이나 도회적인 면과도 통하는 부분이다.



● ● ● 파리 17구? 도심의 북동쪽, 거리 화가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몽마르트르 부근은 20개 구로 나누어진 파리시의 17구에 속한다. 이곳엔 파리의 전형적 정취, 곧 오래된 것의 향기 같은 게 스며 있는 듯하다. 큰 가로와 골목에 줄지어 서 있는 전통적인 외관의 석조 건물들, 그 낡은 듯하면서도 당당한 자태! 세르뉘쉬 거리에 있는 호텔 파르티퀼리에(프랑스에서 호텔이라는 명칭이 붙는 건물은 예전에 귀족이 살던 집이다)도 주위 분위기에 걸맞게 19세기 풍의 고전적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앉은 아튀르 Arthur의 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마치 파리의 이방인처럼.

안과 밖, 과거와 현재의 소통

현관에서부터 위로 곧장 돌아 올라가는 오래된 나무 계단을 따라 걸모양이 같은 집이 층층이 쌓여 있는 형상이 전형적인 파리지앵 아파트라면, 이 집은 장르가 다르다. 아튀르의 현관은 은은한 빛으로 충만한 거실과 바로 통하며, 몇 개의 낮은 계단을 오르면 거실 너머 한눈에 들어오는 정원과 그 위 안마당과도 막힘없이 통한다. 큰 아파트의 중심 부분을 완전히 들어내어 만든, 하늘과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중정은 바로 이 집의 에너자이저이다. 반대편과 오른편 건물의 벽에 반사되어 떨어지는 은은한 빛이 높은 층고로 이어지는 집 전체에 온전히 스며들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1층에서 시작되는 나무 계단은 5층 집 전체를 이어준다. 지하층에는 손님방과 다용도실, 아이들 놀이방이 있다. 1층에는 잔디가 깔린 정원의 남쪽으로 주방과 식당이, 현관문이 있는 도로 쪽으로는 고풍스런 거실이 있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에는 수납장과 화장실 등이 나무문들 속으로 깔끔하게 숨어 있다. 유리 블록 속에 감추어져 은은한 빛을 발하는 조명이 자연광과 섞이면서 복도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 1층에서 인상적인 건, 잔디 정원과 기구가 없는 마루바닥, 그리고 복도를 따라 놓여진 도자기들이 어울려 사뭇 동양적인 느낌을 발한다는 것이다.

2층과 3층에는 두 아이 방과 거실, 화장실이 각각 있고, 4층에는 서고와 업무실을 겸한 높은 천장의 살롱이, 5층에는 주인 부부의 침실과 욕실이 있다. 모든 침실은 남향으로, 잔디 정원과 대나무가 심어진 안마당을 내려다보고 있다. 5층 욕실은 애초에 투명한 유리벽이 외부 공간에 바로 노출되게 디자인되었는데, 지금은 촘촘한 푸른 타일이 박힌 낮은 벽이 칸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5층 침실에서 나선형 계단으로 이어지는 옥상은 나무 바닥이 깔린 테라스. 이곳에서 부부는 도심 속 햇살을 고요



1 2

1. 건물의 안쪽 부분에 있던 집을 여러 채 들어내고 조성한 안마당. 앞쪽은 찬디와 나무를 심어 정원으로 꾸미고, 그 위로 테라스를 두었다. 테라스 왼쪽에 유리창을 바닥에 깔아 그 아래 부엌에 빛이 들도록 했다. 2. 안마당에서 바라본 집. 5층까지 전면을 유리로 마감하여 최대한 햇빛이 들도록 했다.



©JM. Monthiers

하게 즐긴다.

1901년에 귀족의 집으로 처음 지어졌던 이 집은, 1920년대에는 유명한 현대무용가 이사도라 던컨 Isadora Duncan (1877~1927)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이후 1950년대에 여러 채의 아파트로 나뉘어 개조되었던 것을, 독일 상업은행의 간부로 있는 현재의 주인 부부가 건물 전체를 사서, 옛 기억을 간직하며 가족의 보금자리로 꾸민 것이다.

중첩된 시간들을 캐내다

이 집의 리노베이션을 맡았던 건축가 미셸 카강과 나탈리 레니에 Michel W. Kagan et Nathalie Regnier 부부는 아튀르 가족의 새로운 삶의 공간을 건물이 지난 역사와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옛 것에 대한 공경과 현재의 가족을 위한 공간의 새로운 해석을 설계의 방향으로 삼았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이 집은 여러 겹 시간의 켜가 중첩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

북쪽 길가에 면한 고전적인 패사드는 1층의 고풋스런 거실로 그 분위기가 이어진다. 4층의 살롱에는 80여 년 전 이사도라 던컨이 친구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곤 했던 작은 무대를 반치는 고풋스런 아치가 계단을 장식하고 있다. 오래된 벽난로와 계단참에는 아이들이 자라온 시간들이 사진 속에 놓여 있다. 이렇듯 살롱의 풍경은 마치 예전 이곳에 머물렀던 이들과 오늘날 아튀르 가족의 시간이 겹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얇은 격자의 유리 천장에서 들어오는 빛은 이 느낌을 확장시켜주듯, 두 개 층 높이의 공간으로 크게 퍼져간다.

건물 앞쪽으로 남겨둔 과거의 켜와는 반대로, 건축가는 남쪽의 건물덩어리를 과감하게 쳐내고 섬세하게 손질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을 창조

했다. 기존의 건물을 메우고 있던 중심부를 허물어내고 그 자리에 잔디 정원과 안마당을 들여놓은 것. 처음에 언급했듯, 이 중정은 생동감의 원천이다. 햇살과 빛은 때론 직선으로, 때론 옆과 앞 건물의 벽에 반사되어 연중, 그리고 하루 내내 이 집을 넘나든다. 이 5층 집의 중정 방향은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햇살과 빛을 온화하게 받아들인다.

한편, 빛이 길게 들지 않는 안마당은 주방과 식당의 바로 밑 공간이 주방과 식당이다. 말하자면 안마당은 주방과 식당의 지붕인 셈인데, 그 가장자리에 뚫린 유리 블록을 통해 떨어지는 자연광이 그 밑의 식당을 아늑하게 감싸준다.

색상으로 보자면 이 집의 실내는 이사도라 던컨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우아한 아치의 아이보리와 개조한 부분의 심플한 화이트로 채워져 있다. 주거 공간에 필요한 은은한 빛, 곧 빛의 '실내성'을 주택 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건축가는, 당연히 그 빛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노톤을 주색상으로 권한 것이다. 물론, 중정으로부터 유리 패사드를 넘어 집 안으로 스며드는 빛이 그 은은한 실내성을 갖게끔 하는 모노톤의 반투과성 차양도 잊지 않고.

사진을 활용하는 내내 신기해하며 활달하게 오가던 다섯 살 먹은 아튀르 Arthur와 그런 동생을 차분한 눈짓과 미소로 달래던 여덟 살의 클라라 Clara. 그들은 옛 기억과 현재의 일상이 겹쳐 있는 이 공간을 어떤 시간으로 채우며 자라게 될까! 미래의 파리지앵인 그들이 채워갈 파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 열정적 삶을 살았던 던컨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공간을 반갑게 만나고 나서면서 내 자신에게 던진, 즐거운 그림 같은 물음이다. INEX

글 황성철 사진 안홍범

집과 주거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해보기로 하지요. 프랑스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소유의 독립된 주택에서 살아왔고, 오늘날에도 자신이 가꾸는 자신만의 집을 갖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대도시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대부분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 도시가 점차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황은 어느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 공동주택이 생겨나긴 하지만, 이는 일 때문에 도시에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 거주 공간일 뿐입니다.

프랑스 전국 각지의 주택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주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오늘날 여기에 새로운 모습이 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곁에서보다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옛 건물을 현대 생활에 편리하게 개조하고 있어요. 시골 농장들을 집으로, 옛 공장이나 작업실들을 거주 공간이나 사무실로 바꾸고 있지요. 또 아주 오래된 집의 전통적인 멋을 잊지 않게 개조하여 현대적인 생활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중소 도시나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이 대도시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들은 그 마을이나 도시가 가진 고유의 풍경을 해치기 십상인데,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듯한 건축 행위가 자주 드러나고 있어요. 이는 전체적으로 다시 짚어보아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프랑스인들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온전한 생활 보장과 평온함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사회나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평온한 삶은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추구하는 가치겠지만, 특히 프랑스는 이 전통을 소중하게 지켜왔고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다양한 모습들이 표출되고, 이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대립보다는 조화의 미가 실현됩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지요. 오늘날 성숙한 삶의 모습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우호적이고 함께 즐기기를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은 저마다 사는 곳에서 자원봉사, 환경 보호, 스포츠, 취미 생활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상을 즐기고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창조해갑니다.

한국의 집과 건물을 프랑스와 비교하자면, 먼저 한국의 자연 환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 국토의 3분의 2 정도가 거주지로 개발하기 불가능한 산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의 인구 밀도가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 높은 이유입니다. 프랑스에 비하면 네 배가 높아요. 결과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2000만 명이라는 거주민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짜 집'을 가질 수 없어요. 같은 모양과 같은 구조의 집, 곧 아파트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아파트가 높이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 비좁고 깁갑하고 교통 체증이 심한 것도 다 여기에서 비롯되지요.

한국 도시 상황에 비추어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 보니,

빌딩들이 대단히 기능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IT 인프라와 기능성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모든 건물의 디자인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눈에 띄는 외관을 갖고 있음은 인상적인데, 여기에 조각품이나 미술 작품이 빌딩을 장식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나는 포스코 빌딩에 가면 즐거워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몇몇 다른 빌딩에서도 세계적인 미술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엘리 베이터 내부가 다 드러나게 설치되어 높이 올라가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게 꼭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이하기는 합니다.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건 한국의 전통 집입니다. 작지만 구조가 잘 짜여져서 공간 활용이 아주 적절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딸린 작은 정원도 우아합니다. 나무와 화강암 조각품, 바위 등이 어울리는 풍경이 작지만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가끔 가보는 비원은 환상적이지요. 내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거기에 꼭 가보라고 권합니다.

한국인이 일상 생활에서 프랑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회사나 가족, 문중, 학교 등장 같은 모임에 속해 있는 개인은 사회 활동이나 사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물론 젊은 세대는 훨씬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결혼도 늦게 할 뿐더러 예전에 비해 아이도 덜 가지고, 또 이혼도 잦은 편이지요. 한국 사회의 변화가 매우 빠름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외는 다른 이야기인데, 오늘날 한국과 한국인은 대체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이 빠릅니다. 무엇인가 결정되면 바로 행동이 이루어져서, 그에 따른 변화를 눈으로 피부로 금세 느낄 수 있습니다. 대단한 역동성이지요. 하이테크를 바탕으로 한 문화 예술 분야의 발전과 생동감도 대단해요. 한국을 상징하는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구호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사회에서도 좀처럼 접하기 힘든 이 총체적 파워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최선의 합의를 끌어내는 방법을 빠르게 터득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그동안 좋은 관계를 가져온 만큼 더욱더 성숙한 만남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관광이든 업무이든 서로 더 많이 오가고 더 많이 부딪쳐야 해요. 나는 많은 프랑스 회사들이 한국과 교류하고 가까워져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를 적극 주선하고 있고, 실제 성과도 발전적입니다. 한편, 프랑스는 한국인의 여행과 교육과 사업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생각하듯 흥미롭고 멋진 나라인 프랑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교류와 거주에 비싸거나 힘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의성과 혁신을 높이 시는 프랑스인과 한국인들인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어 새롭고 흥미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봅시다. 충분히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인 이브 드 리코 부부 Monsieur et Madame Yves de Ricaud.

ensemble de variété

다양한 표정의 앙상블, 그 유연한 코러스

한불 수교 120주년을 앞두고 오늘날의 프랑스를 담은 잡지를 만나게 되어 아주 행복합니다.
프랑스 곳곳을 다니며 견뎌낸 이야기들이 많은 한국인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inexhousing을 통해 서로 더 잘 알고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독특한 즐거움을
양국 국민이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적을
응시하는
무채색
그 숨겨진
열정**

● ● 유서 깊고 명성 높은 국립 미술 학교인 파리 보자르가 위치한 생 제르맹 데 프레의 골목골목은 프랑스 예술과 낭만의 근원이다. 오늘날 많은 쟁쟁한 미술상들이 활동하는 이 거리에 있는 300년 된 한 건물 2층, 장식이 극도로 절제된 모노톤의 이 집은 아프리카를 오가는 미술상인 사푸토의 의지가 담긴 공간이다. 그는 미니멀을 그저 집을 단순하게 꾸미는 방식이라 여기지 않는다. 삶의 스타일 mode de vie로 삼고 있다. 일과 생활, 생각과 행동의 철학이다. 오래 되어 수십 센티미터나 휘어진 바닥을 제대로 다듬고, 두꺼운 돌로 막혀 있던 사방 벽마다 일부를 터서 전체가 막힘 없이 하나로 통하게 했다. 그리고 사방의 마당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여 공간 전체에 퍼지게 했고, 당연히 흑백의 모노톤을 선택함으로써 빛을 순순히 돋보이도록 했다. 일상에 꼭 필요한 부엌과 침실과 욕실과 창고와 서재가 집 둘레로 작게 작게 자리하고 그 중심에는 확 트인 거실이 전시실처럼 들어앉게 했다. 이로써 미술상은 극도의 열정을 가라앉히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1 2

3 4 5 6 7

1. 인상적인 현대화와 그 아래 아프리카 조각상이 강한 대비를 이루는 거실의 한 벽면은, 아프리카 미술상인 주인의 개성을 보여주듯 갤러리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2. 거실은 이 집의 전부라 할 만큼 큰 공간이다. 거실 주위로 침실, 욕실, 부엌 등이 작은 공간을 차지하여 둘러서 있다. 3. 서쪽 마당으로 난 창이 있는 부엌. 4. 거실에서 본 서쪽 마당. 사푸토의 집은 사방으로 마당을 통하여 이웃집과 연결된다. 5. 현관 6. 욕실 7. 침실까지, 이 집 전체는 두 가지 색상을 주조로 한 모노톤으로 정리되어 있다.





건축가 미셸 카강 Michel W. Kagan이 파리 몽마르트르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황성철씨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집 짓기는 양상불한 그림 그리기이다

maison est peintre

겉으로는 잘 변하지 않지만 그 안은 늘 새롭게 재창조되는 게 프랑스의 일반적 건물의 모습이다. 이는 집과 건축물이 사람의 정서에 유연하게 부응해가고 있음을 뜻한다. 그 바탕은 양상불한 그림 그리기이다.

(대담: 미셸 카강 Michel W. Kagan, 황성철)

돌로 만들어진 파리의 오래된 주택들을 방문하면서 가졌던 궁금증은, 프랑스의 수많은 돌로 된 건물들이 언제까지 존재할까 하는 것이었다. 다음 세기에도 우리는 파리를 방문하면서 같은 건물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대담을 시작했다.

함께 방문한 17구의 집을 예로 보자. 20세기 초에 지어졌던 그 귀족의 집은, 이후에 여러 채의 아파트로 쪼개졌다. 현재의 주인 부부가 전체를 다 사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키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생활 공간을 적합하게 창조해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본래의 의미를 잃었던 건물이 그 역사를 사랑하는 새 주인을 만나 새롭게 숨쉬게 된 것이다. 시대와 사용자에 따라 공간 활용이 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더해질 수는 있겠지만, 옛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한 이런 건물들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미셸 카강, 이하 M.K.)

프랑스적인 건축이 존재한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프랑스인들의 주거와 생활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들어본다.

오늘날 프랑스의 건축은 현대의 전반적 건축 경향과 맞닿아 있다. 그건 바로 큰 줄기를 이루는 사조들은 없어졌으며, 그 경향은 많은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것이다. 건축가들은 각각의 방법과 논리대로 작업에 임하고, 이로써 건축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다른 나라의 경향과 분명한 경계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오늘날 프랑스 여러 세대의 건축가들이 저마다 추구해가고 있는 '다양한 작업 경향의 큰 묶음'이 바로 프랑스적 건축이다.

이러한 각각의 경향들은, 전통적이지만 역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리 17구의 주택을 재설계하면서, 나는 정원과 테라스 같은 열린 공간의 활용을 적극 확대하기를 제안했다. 이는 햇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프랑스 남부의 전통 방식인데, 오늘날 점차 파리 전역으로 파고드는 새로운 경향이기도 하다. 과거가 새 시대와 사람들을 만나 변화되고 융화되고 발전되어 다른 새로운 것이 된다. 후세에는 이것이 또 새로운 전통이 될 것이다. (M.K.)

카강은 최근 한국 건축가들과 몇몇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그 느낌이 어떠했는지,

또 한국의 건축물은 그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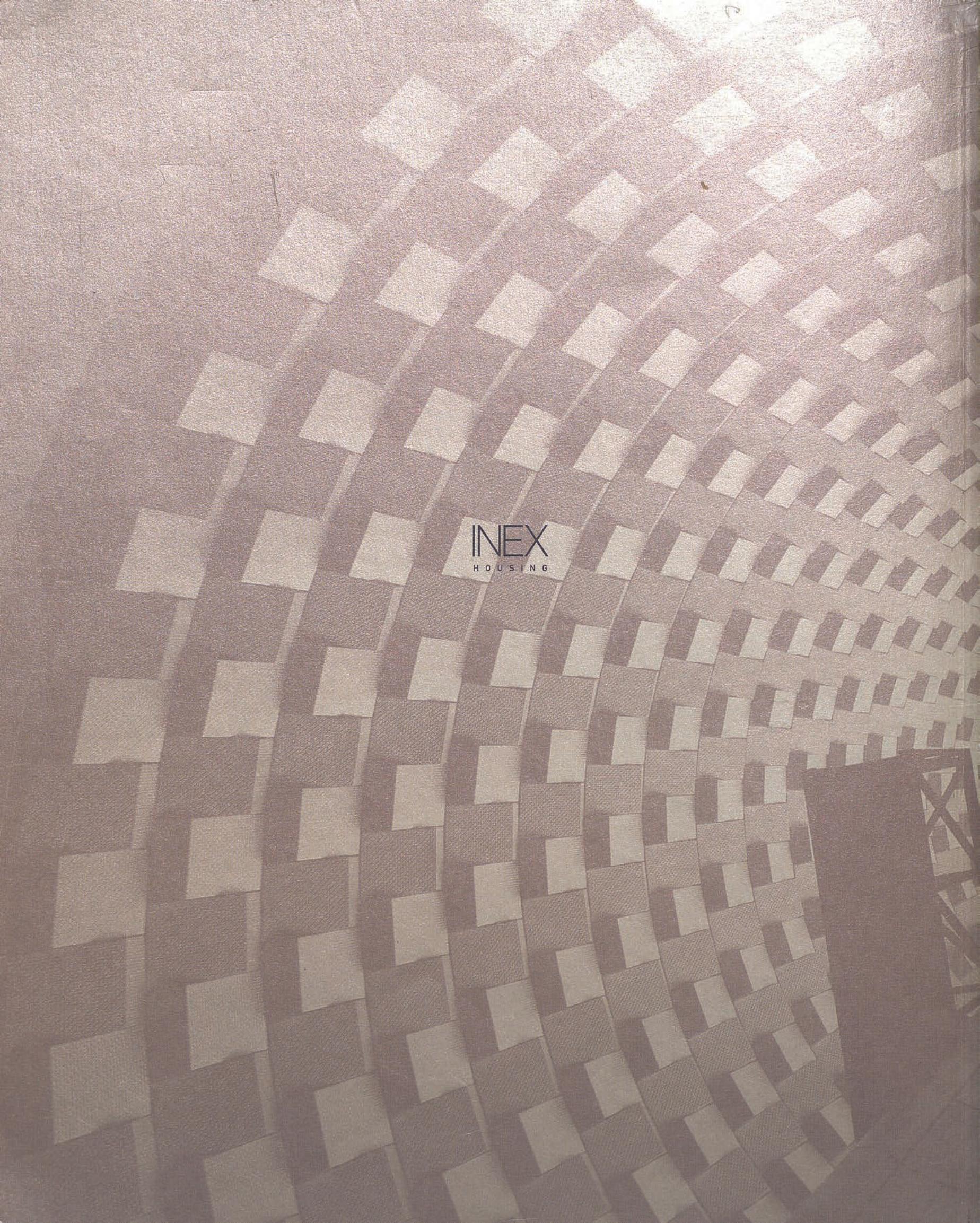
엄청난 현대화의 역동성이 왕성한 가운데서도 엄연히 전통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보존되고 또 새롭게 생성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한국만의 독특한 '생활 문화' l'Art de Vivre로서, 오늘날 한국의 정체성으로 다가왔다. 이 문화적 정체성은 주변의 여러 큰 나라들 사이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다듬어져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다. 한국을 만나면서 언뜻 그리스를 떠올렸던 것도 유사한 이유 때문이다. 한국인 스스로 그 가치의 소중함을 잘 다듬어 틴타한 사회적 토대로 삼기를 바란다.

한국의 건축물에 대한 인상도 역동성으로 집약될 수 있겠다. 첨단의 모던한 건물들을 서울에서 많이 접했다. 건물들 하나하나가 매우 개성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여러 겹의 도시 계획법들에 의한 건축적 제약을 두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도시적 스케일을 염두에 두고 건축물들의 조화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프랑스의 건축가는 창작의 제약을 받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가운데 각각의 건물들이 뿐어내는 개성들이 한데 겹쳐서 또 다른 역동성으로 살아오르는 현상을 프랑스 건축가들이 한국에서 본다면 과연 어떠한 생각들을 할지, 흥미로운 부분이다.

전통적인 한국 건축물들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자연 속에 건물이 조화롭게 들어앉는다는 것이다. 자연상에 존재하는 축, 예를 들어 앞산과 뒷산 사이의 축이라든가 산 사이로 흘러내리는 골의 선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건물이 깨뜨리지 않는 것이다. 또 단순히 자연의 축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자연과 조화하는 또 다른 축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내 작업에 때때로 소중한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한국과의 공동 작업에 대한 개인적 생각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건축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들어보았다.

한국 건축가들과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었던 기회들에 만족하고 감사한다. 같이 작업하면서, 프랑스와 한국의 건축 스타일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했다. 앞서도 언급한 한국 건축계의 놀라운 역동성 때문이다. 이는 세계의 많은 건축가들이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에, 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하나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대형 건축 회사가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는 모습은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완전한 건축물을 생각한다면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이는 모든 대형 사회의 문제점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건축은 무엇보다 '신뢰'의 작업이다. 건축가와 고객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작업 팀원끼리의 신뢰도 아주 중요하다. 집의 경우, 고객은 극히 개인적인 정서와 필요에 부응하는 건축을 원한다. 건축가는 그에 부응하면서도 분명히 자신의 그림을 고객에게 선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는 곧 건축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서로 이해하고 신뢰할 때 최종의 그림이 양상된다. 작업 팀원도 이 점을 같이 인식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사회적 프로젝트도 건축가들과 사회 및 시민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많은 소통을 밀그림으로 삼아 전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도록 그 값을 치르게 된다. 양상불이 잘된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그게 일관된 나의 생각이다. 당신도 그러하지 않는가? (M.K.) 



INEX
HOUSING